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 인사이드 No. 3

유권자의 정치적 이념 성향과 대선 지지 후보

조사개요

1.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 조사지역과 표본크기: 전국 6,728명
3. 조사방법: 휴대전화 RDD 조사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기간: 2012년 5월 29일~6월 29일(매주 월~금, 단, 공휴일 제외)
5.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6. 표본오차: $\pm 1.2\%$ 포인트(95% 신뢰수준)
7. 응답률: 조사기간 내 평균 18%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02-3702-2571/2622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Q&A

우리는 정치적으로 보수, 진보라는 말을 흔히 쓴다. 이는 유권자의 태도나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정당이나 후보의 정치적 이상, 목적이 되기도 한다.

사전적 의미로 보수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입장’이고 진보는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입장’이다.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보수, 진보는 국가의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는지 사회 복지나 양극화 해소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갈리기도 하고 북핵이나 대북 지원에 대한 입장 등이 반영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하게는 대선 경쟁에서 누구를 지지하는가에 따라서도 의견을 달리 한다.

우리는 2012년 상반기 제19대 총선을 치렀고,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다. 총선 전에는 복지가 최대 이슈였다가 총선 이후 통합진보당 사태로 말미암아 이념 논쟁이 촉발된 상태다. 우리 유권자들의 이념 성향은 대선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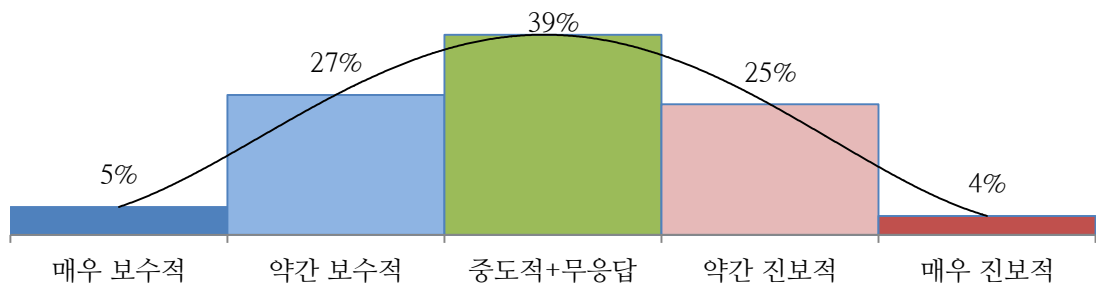
한국갤럽은 데일리정치지표에서 본인의 정치적 이념 성향이 ‘매우 보수적, 보수적, 중도적, 진보적, 매우 진보적’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꾸준히 조사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1~6월별로 우리 국민의 이념 성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각 대선 후보별 지지자들의 이념 성향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등을 분석했다.

2012년 6월 현재 유권자 이념 성향 분포는 보수 32%, 중도 26%, 진보 29%

2012년 6월 한 달간 만 19세 이상 유권자 6,728명에게 본인의 이념 성향을 물은 결과, ‘매우 보수적’ 5%, ‘약간 보수적’ 27%로 스스로 보수라는 응답자는 32%, ‘매우 진보적’ 4%, ‘약간 진보적’ 25%로 진보라는 응답자는 29%로 나타났다. ‘중도적’은 26%, ‘모르겠다’ 13%로 보수, 진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9%였다.

올해 1월부터의 추이를 보면 보수 성향 유권자는 꾸준히 30% 초반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진보 성향 유권자는 2~4월까지 32%였다가 5, 6월에는 29%로 3%포인트 감소했다. 이념지수(보수 성향 유권자와 진보 성향 유권자 비율의 차이)를 기준으로 보면 4월까지의 중심점이 진보 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었지만 총선 후인 5월부터는 보수 쪽으로 약간 이동한 양상이다.

▶ 2012년 6월 정치적 이념 성향 (단위: %)



(월별 추이)

2012년	사례수(명)	(매우+약간) 보수적	중도적+무응답	(매우+약간) 진보적	이념지수* (보수, 진보 차이)
1월	3,031	30	37	33	진보 +3
2월	6,586	32	36	32	0
3월	7,831	30	38	32	진보 +2
4월	6,977	31	38	32	진보 +1
5월	5,880	32	39	29	보수 +3
6월	6,728	32	39	29	보수 +3

(질문) 귀하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매우 보수적, 약간 보수적, 중도적, 약간 진보적, 매우 진보적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념지수: ‘(매우+약간) 보수적’ 비율과 ‘(매우+약간) 진보적’ 비율의 차이. 이 차이가 ‘0’이라면 보수와 진보가 같음을 의미하며, ‘진보 +3’은 진보 비율이 보수 비율보다 3%포인트 더 많음을 의미한다.

고연령일수록 보수, 저연령일수록 진보

대구/경북이 가장 보수적, 광주/전라가 가장 진보적

이념 성향은 연령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연령에 따른 차이가 컸는데 20대에서는 보수 22%, 진보 39%로 진보가 더 많은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보수 43%, 진보 11%로 보수가 압도적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 성향, 낮을수록 진보 성향자가 많아지지만 40대는 보수 31%, 진보 34%로 어느 한쪽에 크게 치우치지 않는다. 이번 대선에서 40대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보수 42%, 진보 21%로 보수가 많은 반면, 광주/전라에서 보수 23%, 진보 36%로 진보가 많았다.

▶ 2012년 6월 정치적 이념 성향-응답자 지역별, 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명)	(매우+약간) 보수적	중도적+ 무응답	(매우+약간) 진보적	이념지수 (보수, 진보 차이)
전체		6,728	32	39	29	보수 +3
지역별	서울	1,401	33	38	29	보수 +4
	인천/경기	1,912	31	39	31	0
	강원	206	35	43	22	보수 +13
	대전/충청	680	32	40	28	보수 +4
	광주/전라	690	23	41	<u>36</u>	<u>진보 +13</u>
	대구/경북	697	<u>42</u>	37	21	<u>보수 +21</u>
	부산/울산/경남	1,068	35	39	27	보수 +8
	제주	74	35	36	30	보수 +5
연령별	19~29세	1,244	22	39	<u>39</u>	<u>진보 +17</u>
	30대	1,387	24	37	<u>40</u>	<u>진보 +16</u>
	40대	1,480	31	35	34	진보 +3
	50대	1,265	<u>42</u>	37	21	<u>보수 +21</u>
	60세 이상	1,352	<u>43</u>	46	11	<u>보수 +32</u>

박근혜 지지자는 보수 +35%포인트

안철수 지지자(진보 +25%포인트)보다 문재인 지지자(진보 +43%포인트)가 더 진보 성향

지지 후보별로 이념 성향을 살펴보면 박근혜 지지자 중 보수 성향 유권자는 49%, 진보 유권자는 14%로 보수가 35%포인트 더 많은 반면, 문재인 지지자는 보수 13%, 진보 56%로 진보가 43%포인트 더 많았다. 안철수 지지자에서는 보수 20%, 진보 45%로 진보가 25%포인트 더 많았다.

유력한 세 후보 중 박근혜 지지자는 보수, 문재인, 안철수 지지자는 진보가 많았고, 문재인 지지자가 안철수 지지자에 비해 더 진보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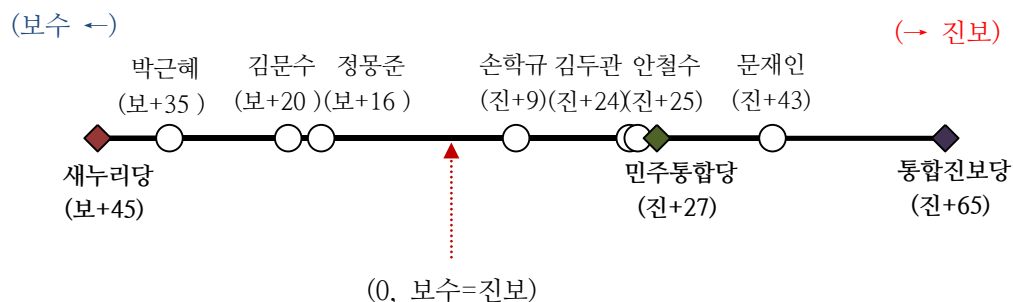
이외 후보의 경우 새누리당의 김문수(보수 +20), 정몽준(보수 +16) 후보 지지자는 보수 성향자가 더 많은 반면, 민주통합당의 김두관(진보 +24), 손학규(진보 +9) 후보 지지자는 진보 성향자가 많았다. 지지자의 이념 성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손학규 후보가 가장 중도적 위치에 있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는 보수(보수 +45), 민주통합당 지지자는 진보(진보 +27)가 우세했다. 통합진보당 지지자(진보 +65)는 민주통합당 지지자보다 훨씬 더 진보 성향이다.

▶ 2012년 6월 정치적 이념 성향-지지 후보, 지지 정당별 (단위: %)

구분		사례수(명)	(매우+약간) 보수적	중도적+ 무응답	(매우+약간) 진보적	이념지수 (보수, 진보 차이)
전체		6,728	32	39	29	보수 +3
지지 후보별	김두관	114	21	34	45	진보 +24
	김문수	85	44	32	24	보수 +20
	문재인	747	13	31	56	진보 +43
	박근혜	2,508	49	37	14	보수 +35
	손학규	132	25	42	34	진보 +9
	안철수	1,455	20	35	45	진보 +25
	정몽준	176	43	30	27	보수 +16
	모름/무응답	1,448	25	51	24	보수 +1
지지 정당별	새누리당	2,310	56	33	11	보수 +45
	민주통합당	1,590	19	35	46	진보 +27
	통합진보당	226	7	21	72	진보 +65
	선진통일당	30	45	29	26	보수 +19
	모름/무응답	2,500	22	49	30	진보 +8

▶ 지지 후보, 지지 정당별 이념지수



※ 2012년 1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672명 조사 결과

: 2012년 1월 8~13일(5일간),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2.4%포인트(95% 신뢰수준)

보수, 진보 이념 성향은 구체적인 사안이나 국가 정책 방향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한국갤럽은 지난 1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672명에게 국가의 목표로 성장과 복지,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참여 확대, 대북 안보강화와 협력확대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물었다. 성장, 사회질서, 대북 안보강화는 현재 보수 진영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주장이고 복지, 국민참여, 대북 협력확대는 진보 진영에서 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 먼저 성장과 복지 중 선택하게 한 결과,
‘성장’은 31%, ‘복지’는 62%가 응답해 성장보다는 복지를 우선하는 의견이 두 배에 달했다.
-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참여 확대 중에서는
‘사회질서 유지’ 52%, ‘국민참여 확대’ 40%로 사회질서 유지를 좀 더 원했다.
- 대북 안보강화와 협력확대 중에서는
‘대북 안보강화’ 45%, ‘대북 협력확대’ 48%로 의견이 양분됐다.

주요 대선 후보 지지자별로 응답에 차이가 있었다.

박근혜 지지자(504명)는 ‘성장’ 40%, ‘복지’ 50%로 ‘복지’ 의견이 앞서긴 하지만 타 후보 지지자들에 비해 ‘성장’에도 적지 않은 무게를 실었고, ‘사회질서 유지’, ‘대북 안보강화’ 중시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안철수 지지자(491명)는 ‘성장’보다는 ‘복지’를 우선시하고 ‘국민참여 확대’, ‘대북 협력강화’를 더 중요시했다. 문재인 지지자(174명)는 안철수 지지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복지’, ‘국민참여 확대’, ‘대북 협력강화’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종합하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성장’보다 ‘복지’가 더 필요하다는 데에 다같이 공감하지만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참여 확대’, ‘대북 안보강화와 협력확대’ 문제에서는 이념 성향을 달리하는 각 후보 지지자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국가 목표 우선 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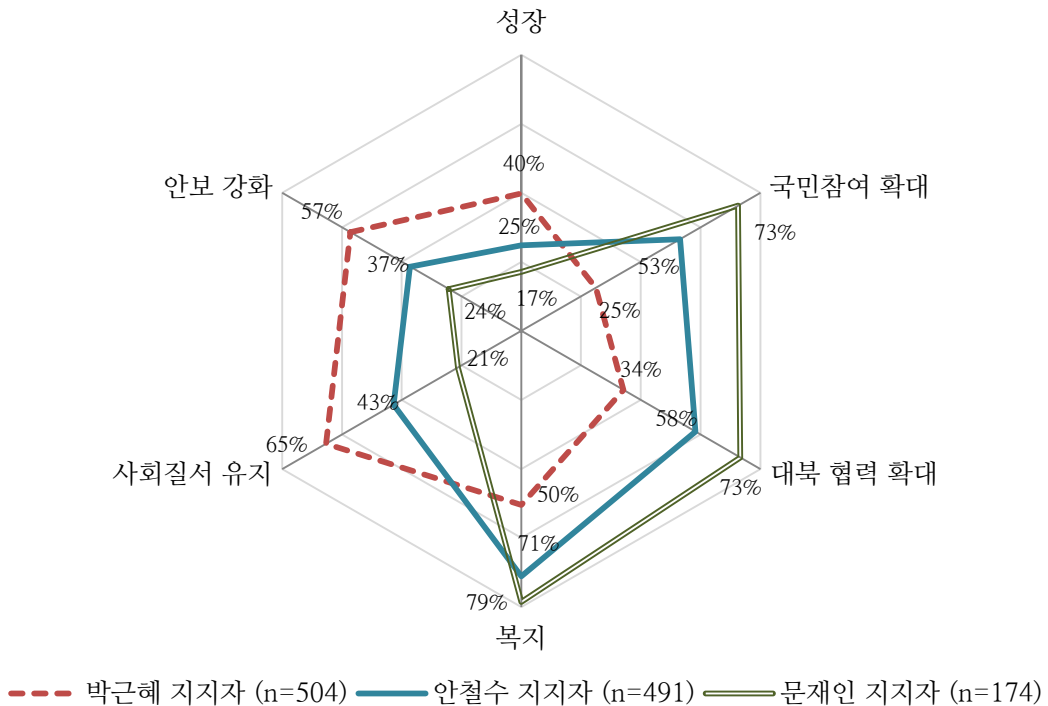
(1) 성장 vs. 복지, (2) 국민참여 확대 vs. 사회질서 유지, (3) 대북 협력확대 vs. 대북 안보강화

		사례수(명)	(1)		(2)		(3)	
			성장	복지	사회질서 유지	국민참여 확대	대북 안보강화	대북 협력확대
전체		1,672	31	<u>62</u>	52	40	45	48
지지 후보별	박근혜	504	40	50	<u>65</u>	25	57	34
	안철수	491	25	<u>71</u>	43	53	37	<u>58</u>
	문재인	174	17	<u>79</u>	21	<u>73</u>	24	<u>73</u>

(질문)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다양한 국가 목표가 있는데요,

귀하께서는 ‘(1) 성장과 복지, (2)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참여 확대, (3) 대북 안보강화와 대북 협력확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요 대선 후보 지지자별 국가 목표 우선 순위



12월 대선까지 보수, 진보 양 진영은 기존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중도/부동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유권자들의 국가 목표 우선 순위 조사 결과를 보면 양 진영이 택할 전략은 대략 명확해진다.

첫째, 양 진영 모두 성장보다는 복지에 집중할 것이다. 내용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복지는 2012년 현재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며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다. 둘째, ‘소통 부족-국가 혼란’, ‘대북 불안감 조성-대북 퍼주기’로 맞서며 상대 진영에 대한 네거티브를 강화할 것이다. 이는 중도/부동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기존 지지자를 결집하고 힘을 키우기 위한 불가피한 요소다.

결국 이번 대선은 유권자의 이념 성향, 유권자가 생각하는 국가 발전 방향성을 통해 좌우될 것이다. 대선 주자들 중 누가 더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복지 공약을 제시했는지, 누가 더 잘 소통했는지, 대북 이슈에 누가 더 잘 대처했는지는 최종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작성 2012년 7월 4일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02-3702-2571/2622

-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12년 1월부터 자체 조사하여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제공하는 정치지표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휴대전화 RDD 조사) 매일 300명 이상, 매주 1,500명 이상 유효표본(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을 인터뷰합니다.

-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이전 한국갤럽 홈페이지(www.gallup.co.kr)와 블로그(gallupkorea.blogspot.com)에 공개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구독 신청](#)하시면 주간 리포트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매월 초에는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 월간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합니다. 매월 1~4주 통합 결과를 담은 월간 지표는 유효표본 6,000여명 규모로 전국 8개권역, 성별, 연령별, 직업별, 이념성향별 단위에서도 의미 있게 추이 변화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26개 분석 단위 중 강원, 제주 지역, 그리고 농/임/어업 직업군을 제외한 23개 분석 단위의 유효표본은 최소 500명 이상입니다.
-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 인사이드〉는 일간, 주간, 월간 정기 지표의 숨은 의미 해석, 장기적 추세, 특정 이슈와 연계한 해석 등을 담은 별도의 분석 리포트입니다. 데일리정치지표 인사이드는 부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 한국갤럽 데일리정치지표는 한국갤럽의 자산이므로 상업적 용도의 재판매를 금지합니다.
-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